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5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9월 30일(수)

청송 심문의 마음의 고향 소헌공원 아름다운 변신

심문의 상징물... 걸고, 세우고, 묻는다



진영(眞影) 걸고

찬경루(讚慶樓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49호)는 '청송 보광산에 있는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시조 문림랑공(휘 沈洪孚) 묘소를 바라보며 우러러 찬미한다'는 뜻에서 찬경루라고 편액했다고 한다. 대종회와 청송군은 이런 경위를 알리기 위해 찬경루에 소헌왕후와 세종대왕의 진영을 모실 계획이다.

소헌왕후 상징물 세우고

대종회와 청송군은 소헌공원 내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원의 내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포토존 역할도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작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소헌공원에 설치하는 작품인 만큼 모티프는 소헌왕후나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타임캡슐을 묻는다

대종회는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1주년을 맞아 타임캡슐을 소헌공원 내 찬경루 옆에 묻는다. 이 캡슐은 30년 후 시조 문림랑공 추향일에 개봉한다. 캡슐 안에는 한마음대회의 이야기(책), USB, 홍보 및 결산 특집 종보 등 한마음대회 기록물, 대종회 임원명부, 2020년 정기이사회(종재목록), 대동세보수권(경진보 2000년) 등 대종회 기록물, 지파종회 매설희망품목, 청송심씨 인구수 및 거주분포, 장학제도 및 자랑스런 청송심문인상 수상소감문, (재)청심장학회 제1~2회 장학생의 자기소개서 등을 담을 예정이다. 대종회는 자랑스러운 심문인 수상자, 심문을 위해 애쓴 공로자, 장학생 등에게는 30년 후의 타임캡슐 개봉식에 모시는 초청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타임캡슐 매설 관련 2차 회의(7월 30일)

2020년 서면 정기총회 찬성율 99.0%, 99.1%, 98.2%

지난 8월 19일부터 28까지 서면으로 실시한 '2020년도 제50회 정기총회'의 찬성율은 각각 99.0%, 99.1%, 98.2%로 나타났다. 대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의 정기총회를 2차례를 연기한 끝에 비대면 서면결의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국 일가 767명이 의결서를 보내왔으며, 8월 31일 대종회 감사 임회하에 검토한 결과,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은 759명(99.0%)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760명(99.1%)이, 임원선출에 관한 건은 753명(98.2%)이 찬성했다.

내일의 주인공: 청심장학금 2기 수혜자 2명의 소감

“영광스러운 심문의 장학생...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 제대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나 아닌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운 면접에 감동”



심보미 (추계예술대 국악과 1년)

청송 심씨 일가에서 조 선의 왕비를 3명이나 배 출했고, 심씨 여자들은 능력이 많다!

제가 국악을 시작하고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대 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처 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주 위에 청송 심씨 가족분들 이 저를 광장히 자랑스럽 게 여겨주면서 청송 심씨 를 빛내는 국창이 되라는 덕담도 아낌없이 해주셨

습니다. 단순히 청송 심씨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아껴주 고 보듬어주는 것을 보고 아, 청송 심씨는 다른 성씨와는 달리 따뜻함과 유대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송 심씨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청송 심씨 를 빛낼 수 있는 인물이 되려고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있던 청송 심씨 가문과 역대 왕비들이 항상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듯, 저 역시도 내 가족, 친 척들이 저를 보며 동기부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고,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장 원을 했을 때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저의 이름 석자 ‘심보 미’를 보며 나도 무언가 이루었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 못 들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가족과 친척의 응원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집 안에서 예술가 한 명을 키워내고자 무던히 노력하 셧던 저의 부모님, 명절 때마다 자랑스러운 명창이라고 응원해주시던 친척들. 제 원동력은 항상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한 애정과 응원을 주는 것만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청심장학회에서 기대를 걸어주신 만큼 그기대 에 부응하고자 더 정진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 제 대로 날려보려고 합니다. 청송심씨장학생으로서 자부 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먼저 비싼 로스쿨 학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1학기에 로스쿨 에 처음 입학해서 주위의 뛰 어난 친구들을 보고 많이 위 축되어 있었는데, 심대평 이 사장님이 장학금 수여식에 서 해주셨던 격려의 말씀 덕 분에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 진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이번 청심장학금 선발절차 중에 있었던 면접도 저에게 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아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무 엇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잘 할 수 있을까?’라 는 고민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에 파묻힌 나머지,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의 전제가 됐어야 할 ‘왜?’라 는 질문은 정작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 생 선발 면접에 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 팩’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서 다른 학생보다 잘 보일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관님들의 질 문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효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생 각해보지 못한 물음들이었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면접관님들은 ‘이번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 면서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서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했던 답변들이 지꾸 떠올라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히 로스쿨에 갓 입학한 1학년 때에 그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이 아주 큰 행운이라는 안 도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면접관님들이 하셨던 질문을 항상 간직한 채로 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장학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는 학생과 인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沈영감 심민섭



“청송은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



육군 소장 심진선 제6보병사단 사단장

코로나 19 환 산으로 30만 문 중 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 다. 이를 타개 할 수 있는 해 안이 바로 지 난해 우리 청 송심문이 보여 준 ‘인심제 태 산이(人心齊 泰山移)’라는 보편적 가치 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문중의 세심한 독려 (督勵)를 받았던 제6보병사단 심진선 소장입니다.

우리의 본향(本鄉)인 청송(靑松)은 제 유년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록 청송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맑은 냇가에서 벗들과 뛰어놀며 푸른 소나무(청송) 아래서 담소(談笑)를 나눴던 추억은 ‘청송’ 그 자체입니다.

유년시절을 보내고 타지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청 년이 되었을 때, ‘청송’은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든든 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효(孝)와 제(悌)를 돈독히 하 고 문무(文武)를 숭상했던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 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이(學而)편의 ‘군자무 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효제야자 (孝弟也者), 기위인지본여(其爲仁之本與)’를 일생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삼았습니다. 장교로 임관하여 전· 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던 시절, 힘들 때마다 효와 제를 잊지 않았으며, 매사에 정성을 다하며 심문(沈 門)의 자부심으로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송심씨의 800년 역사의 한켠에서 지천명(知天命) 을 흠뻑 넘겼습니다. 1만 1천명의 장병들과 동고동락 (同苦同樂)하며, 내 조국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때마다 격월로 문중의 소식을 전 해주시는 ‘청송심씨종보(靑松沈氏宗報)’와 올해 초 보내주신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이야기」의 책장을 넘겨봅니다. 문중의 소식을 통해 제 뿌리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배우고 느낍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되새깁니다. 다시금 힘 을 내서 이곳 철원의 GOP철책을 힘차게 걷습니다.

경자년(庚子年)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새로운 곳 에서 새로운 소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조의 가르침과 문중의 독려를 잊지 않고, 매사 에 ‘본립도생(本立道生)’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음만은 모두가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심대평 대종회 회장님과 대종회 일가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배려,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문(沈門)과 함께 주위를 밝게 빛내며 헌신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심문 일가의 일상과 미래에 기쁨 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 /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사행산업, 묶느냐 푸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공무원의 최고위직을 말할 때 흔히 ‘장·차관’이라고 한다. 지방(紙榜)을 쓸 때 ‘현고학생부군(顯考學生府君神位)’를 훌쩍 뛰어넘은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장·차관은 ‘정무직’이어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높은 자리인 만큼 바람도 많이 탄다. 장·차관을 마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며 지낼까. 10인 10색이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공직의 경험을 살려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보훈처 차장(차관)을 지내고 지난 2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심덕섭 일가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그를 만나봤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어떤 곳?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2007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사행산업통합감독 기구이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사행산업 총량 관리, 현장 지도감독,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상근직원은 50여 명이며, 사무처장, 기획총괄과, 예방치유과, 감독지도과, 조사홍보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산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다. 사무실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02-3704-0500



심덕섭 위원장

심덕섭 위원장이 걸어온 길

196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개발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0회(1986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주 캐나다대사관 공사,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과 지방행정실장을 거쳐 국가보훈처 차장(2017.7~2018.12)을 지냈다.

- 사감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는.

“작년 12월 초 콜롬비아에 출장을 가 있는데 한국에서 국제전화가 여러 번 왔다. 국무총리실이였다. 제5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사감위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걸 바로잡는 데는 당신이 적임이라는 판단을 워선에서 했다고 한다.”
 낭중지추, 인제는 어디를 가든 표시가 나타나 보다.

- 행정경험이 많긴 하지만 조금 생소한 업무일 것 같은데.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감위 업무는 사실 생소했다. 그렇지만 정부 조직관리 업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는 비교적 빨리 적응한 편이다.”

- 사감위에 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예전에는 사행산업 하면 모든 것이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마, 카지노, 경륜, 복권, 체육투표권, 소싸움 등은 합법이다.

다만, 이들 사업이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어 사감위가 여러 규제수단을 동원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도박의 규모가 지금도 엄청 큰데, 규모가 급속도로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의 연간 규모는 22조 4천억 원인데, 불법도박은 합법의 3.6배나 되는 8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약 3분의 2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답을 보면 역시 화투장 한번 안 잡아본 ‘범생’임에 틀림없다. 좋아하는, 아니면 잘하는 ‘잡기’가 있는지 물어봤다. “대학 때 독섬 경마장 딱한번 가봤고, 평소에는 고스톱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한국의 도박산업 전체를 감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감위는 기본적으로 사행사업자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사행사업자로부터는 늘 원망과 비난을 받는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로또와 스포츠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행사

업이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직원들은 휴직시키고, 손실은 쌓이는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경마, 경륜, 경륜은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한 정신 함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감위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해 주기 어렵다. 사행사업자들의 사업확대 욕구와 국민의 정신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

- 어떤 기관과 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사감위는 업무상으로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1차 감독기관인 문체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등 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행사업 시행기관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자주 협업하고 있다.”

- 업무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동안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건전화보다는 사행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감위를 설치한 목적이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통해 국민을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감위의 역할은 분명하다. 앞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 규제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면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사행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장이나 카지노가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을 비집고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활짝 열린 언택트 시대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도박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달팽이 달리기’나 ‘사다리 타기’ 등을 인터넷 게임으로 착각하고 베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혹시 우리 집 자녀들이 도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주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택트 시대에 활개 치는 온라인 도박중독을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도박은 탐욕의 아들이요, 절망의 아버지이다(프랑스 속담). 진정한 행운은 테이블에서 최고의 패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언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지를 아는 사람이다(존 밀턴 헤이). 사감위는 탐욕과 절망의 세계에서 행운을 지향하는 곳이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5)

“왜적 물리쳐 나라에 보답” 노모 허락받고 출전해 큰 공

11세조 벽절공(碧節公·휘 沈淸) 할아버지 (2)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애야, 너는 위인들의 전기(傳記)를 많이 읽어 봤겠지. 전기를 읽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일생을 통해 배울 점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겠니? 묘비명(墓碑銘)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묘비명은 묘비(墓碑)에 새겨진 글을 말하는데 비문(碑文) 혹은 묘갈명(墓碣銘)이라고도 해.

돌아가신 분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

11세 벽절공 할아버지의 묘갈명은 안동사람 권주욱(權周郁) 선생이 썼는데, 읽어보면 벽절공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공적을 알 수 있다.

벽절공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학문도 깊었지만 시대의 흐름까지 내다본 지사(志士)였어. 아는 것을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 기도 하셨지. 그러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루신 것이야. 아래 비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하루는 정자¹⁾ 위에서 글을 읽으며 천체(天體)의 현상을 우러러보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몇 해 안에 나라에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 하더니, 과연 임진년 4월에 왜구(倭寇)가 크게 쳐들어와 임금이 서울을 떠나자, 공(公)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이제 신하로서 나라를 위하여 일어설 때’ 라 하며 전쟁터에 나가려 할 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신지라 공이 눈물을 흘리며 뵈고 말하기를 ‘충효를 들 다 온전하기는 어려우나 나랏일이 이와 같으니 감히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겠다’ 고 하자 어머니가 울면서 허락하였다.

공은 곧 사당(祠堂)에 고하고 두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들썩인 응렴(應濂)은 아직 어리니 나를 대신하여 늙은 어머니를 섬기고, 말이 응락(應洛)은 나를 따라 전쟁터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웃 선비인 동계(東溪)²⁾ 조형도(趙亨道)와 그 아우 동도(東道)와 같이 화강상(和江上)³⁾에 가서 죽기로 동맹하였다.

이 글을 읽어보면 벽절공 할아버지는 용감도 하셨지만 효심도 아주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전쟁터에는 나가야 하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자 간곡하게 부탁해서 허락을 얻어냈던 거야. 그리고 보면 그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물론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도 투철하셨지.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 집에 있으면서 늙으신

할머니를 모시게 하고, 맏아들만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셨잖아. 당시 전쟁터도 화살이 빙빙 날고 칼날이 번득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지. 그런데도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셨어. 아들에게 대의(大義)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벽절공 할아버지는 훌륭한 선비였던 거야.

다음 비문을 읽어보면 벽절공 할아버지는 지략(智略)도 뛰어났지만, 당신이 세운 공도 남에게 양보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

계사년에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이 진주에서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남쪽에 중진(重鎭)이 될 사람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더욱 마땅히 죽을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다.

갑오년에 조형도와 같이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다시 의병진영(義兵陣營)에 돌아와 힘을 다하여 물자를 조달하니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그 공(功)을 알려 조정에서 훈련장(訓練將)에 임명하였다.

주사산(朱砂山)에 이르러 적(賊)과 싸워서 대파(大破)하니, 여러 장수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이번 싸움에 이긴 것이 가장 통쾌한데, 이는 모두 심 훈련장의 지략 덕분이라고 치하하였다. 이에 벽절공은 김응택(金應澤)에게로 그 공을 돌렸다.

벽절공 할아버지는 전국 각지의 지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셨어. 청송에만 머무르지 않고 멀리 현풍의 곽재우 장군과도 서신을 주고받으셨고, 대구의 팔공산까지 직접 가서 그곳의 병들과 의기투합해 전략을 세우기도 하셨지.

아래 비문을 읽어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어.

병신년에 인근 의병장이 팔공산(八公山)에 모였는데 공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유천수인대(有天讎忍戴) 위국사무우(爲國死無憂)’ 즉 ‘같은 하늘 아래 원수와 같이 있는 것을 참느니 차라리 나라를 위해 죽어서 걱정을 없애리로다.’ 라고 하며 결의를 다졌다.

정유년에 방어사(防禦使) 곽재우(郭再祐)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서신으로 조문(弔問)하고 나라일을 걱정하였다.

그래, 벽절공 할아버지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님이야. 우리의 몸속에는 이런 훌륭한 선조님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우리 역시 선조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간

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다음 호에서는 벽절정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호에 계속)



벽절정 마당의 향나무. 산 중턱에 벽절공 할아버지 묘소가 있다.



벽절정 본채.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군 문화유산이다.

1) 고향마을 뒤쪽 언덕에 있던 구송정(九松亭)을 말한다.

2) 조형도(趙亨道) 선생의 호

3) 용전천 냇가로 추정됨

청송심문 13정승 열전(9) 청원부원군 좌의정 심기원(沈器遠, 1587~1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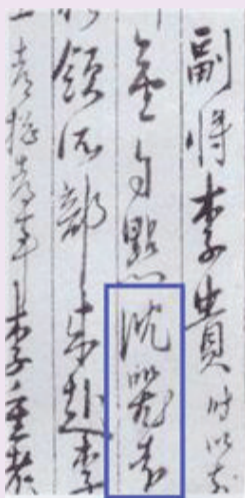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으나 역모 혐의로 희생되다

군사들이 체포하려하자 "내가 어찌 역적질을 할 자인가?"... 당일 처형 역사서 사라져



심재석
문학박사

1. 심기원 할아버지, 인조반정(1623)의 주역



「광해군일기」 15년조의 인조반정 기사. 유생 '심기원'의 이름이 보인다.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 좌의정 심기원 선조(字는 遂之, 이하 수지공으로 호칭)는 청운군 심명세(沈命世)와 함께 유생 신분으로 인조반정(1623년)에 참가해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1624)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반란군이 잠시 국왕으로 추대한 흥안군(興安君)을 처형해 인조의 노여움을 샀다. 흥안군은 인조의 서삼촌으로 왕족인만큼 국왕의 허락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형해야 하는데 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수지공은 정묘호란(1627년) 때는 세자를 보호하는 공로를 세웠다. 병자호란(1636)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한양을 지켰으나, 광릉으로 후퇴해 국왕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유배를 당했다.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말년에는 병조판서(1641년), 우의정(1642년), 좌의정(1643년)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좌의정 사직 후 얼마 안 돼 반역 혐의로 처형당했다. 이 때문에 기록에서 수지공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라감사를 지냈지만 명단에 빠져 있다. 필자는 백방으로 수지공의 유물이나 필적을 찾았으나 쉽지 않았다. 다행히 그의 스승이자 조선 중기의 시인인 권필(權韜 · 1569~1612)의 시문집 「석주집(石洲集)」에서 공이 쓴 발문을 찾았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지공의 유일한 글이다.

2. 수지공의 연보

수지공은 13세조로 안효공(淵)-수찬공(達源)-침정공(鎡)의 후손이며,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정승이 되었다. 儒生신분으로 인조반정에 참가해 1등공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생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양으로 추정된다.

▷ 연보

연도	나이	직책 및 활동
1587(선조 20)	1	출생
1623.3.12(광해 15)	37	(儒生신분으로) 인조반정 참가
1624(인조 1)	38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로 '이괄의 난' 진압
1627(인조 4)	41	정묘호란 때,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도의 도검찰사(都檢察使)로 세자를 모시고 피난
1632(인조 9)	46	전라감사(감사명단에 빠져 있음)
1636(인조 13)	50	병자호란 때 유도대장(留都大將 · 모친상 중 복직)
1637. 2. 15 ~ 1639. 7. 21	51~53	중거리 유배 → 먼곳 유배 → 남한 산성으로 유배지 변경 → 귀향
1641(인조 19)	55	병조판서
1642(인조 20)	56	우의정
1643(인조 21)	57	좌의정(임명시기 불명),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 봉작
1644(인조 22)	58	별세(3월 27일)

3. 정말로 역모를 저질렀을까

① 이해하기 힘든 역모 사건

수지공은 1644년(인조 22) 역모 사건이 발각된 날 변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날 황급히 처형당했다. 공을 체포하려하자 첫마디는 "내가 어찌 역적질을 할 자인가(吾豈爲逆賊者乎)?"라고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수지공의 혐의는 훈련대장 구인후를 암살하고, 조정에서 친청파들을 처형함으로써 정권을 교체하려 했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 사건을 '심기원 옥사'로 기록하고 있다.

이 옥사는 친청파와 반청파(친명파)간의 권력 다툼에서 친청파의 우두머리인 김자점이 반청파인 수지공을 제거한 사건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에서 종종 문제를 키웠던 '흔해 빠진 역모 사건' 중 하나로 본다. 인조반정의 주역이, 당시 최고 실력자들과 교감도 없이 어찌 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정계는 친청파와 친명파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자점을 중심으로 한 친청파는 청

나라에 끌려다니는 왕조의 처신을 방지했다. 수지공 등 인조반정을 주도한 일부 인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차였다.

수지공은 심복 황익(黃灑 · 개명 黃濤)를 역모 혐의로 고변하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평소 불량하기 그지없는 황익을 감싸고 돌봐 준 공의 잘못도 있다.

② 일가로서 억울하게 유배당한 청봉 심동구(沈東龜)

수지공이 역모 혐의를 받을 때 수지공의 집에 왕래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동구는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이에 효간공(휘 諱)은 지병이 도져 숨졌다(인조실록 23년조). 청봉은 유배지에서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니, 눈물에 옷이 다 젖었고, 한 달도 안 돼 머리가 다 희어졌다(심동구묘갈명)"고 한다. 인조 25년(1647)에 좌의정 이경석과 우의정 남이웅이 청봉의 신원(伸冤)을 청했으나 인조는 말이 없었다. 효종 때도 대사헌 홍무적과 예조판서 이후원이 구명에 노력했다.

수지공은 불미스럽게 생을 마감하였기에, 후손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임경업 장군이 조선 후기 친명(親明)의 화신으로 '추양'을 받는데 비해, 수지공은 '역적'이 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다. 앞으로 정밀한 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 심기원 할아버지가 받은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은 박탈당한 훈호여서, 조선시대에는 쓰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대로 쓴다. 22년간 인조를 보필한 공로로 좌의정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틀 후에 받은 칭호로서 심기원 할아버지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심동구 묘표
(인천 서구 공촌동)



수지공의 부친으로 청풍군수를 지낸 심간(沈澗) 할아버지의 묘.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있다. 수지공의 묘는 전하지 않고 있는데 현 안양고 자리가 수지공의 묘터라는 말이 있다(松庭 沈左輔 선생의 말). 필자도 심간 묘역이나 안양고 근처에 수지공의 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심간 할아버지의 묘소는 심홍섭 효장공파 고문님의 안내로 찾아갔다. (2020년 8월 27일, 심재석 촬영)

지파종회 소식... 오늘도 조상님을 기리며

무슨 일을 해도 즐겁다... 우리는 심문의 가족이니까

청주 청송심씨묘역 향토유형유적으로 지정

청주시는 7월 3일 청송심씨묘역(사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5번)을 향토유형유적(제162호)으로 지정했다. 이 묘역에는 4세 조 정안공(휘 沈德符) 배위 정경부인 청주송씨 할머니와 5세조 도총제공(휘 沈仁鳳) 할아버지의 배위 묘소가 있다.



이 묘역이 향토유형유적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청주종회 심상호 회장, 심의보 감사, 심재훈 사무국장, 심상학 홍보이사 등을 비롯한 청주종회 일가분들이 기록물 조사, 관련서류 구비, 관계기관 방문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선무공 의병장 후손, 임진왜란 전투지 답사

11세조 선무공(휘 沈友信) 의병장 선양사업회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선무공께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신 지역을 답사했다. 선양사업회는 선무공 후손 심창선 곡산공종회 총무, 심재성 이경공종회 총무, 심효섭 곡산공종회 이사, 김포문화원장, 역사학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답사단은 선무공께서 대승을 거둔 경기 수원 독산성, 전남 장성 표의사(구 장천사)를 답사하여 의미있는 사료도 확보했다. 장성 선무공종회 심재규 회장이 사료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3일 차에는 선무공께서 순절하신 마지막 전투지 경남 진주성과 창열사를 찾았다. 이날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 겸 악은공종회장(진주문화유산원장), 심홍보 창원사복시정공종회 총무, 현령공경남종회 심진식 총무 등이 합류해 소상하게 설명 겸 안내를 해주었다.



오른쪽부터 심홍보, 심재성, 심효섭, 김포문화원장, 심동섭, 심창선, 그리고 역사학자 3인.

캐나다 토론토 종회, 심문 달력 제작에 성금 쾌척



캐나다 토론토종회 일가분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일가들 8명이 격주로 골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골프에 참가하는 일가분들은 지난 모임에서 대종회에서 만드는 심문 달력을 화제로 삼아 얘기를 나눴으며, 달력 제작에 1인당 캐나다달러로 100달러씩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성의를 표시한 분은 광택, 상수, 태섭, 창섭, 재환, 용웅, 우성 일가분들입니다. 일가분들은 대종회에서 코로나 마스크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캐나다 토론토종회장 심상욱)

캐나다 토론토 종회는 7분의 성금과 심상욱 회장이 낸 1백만원을 합쳐 161만 6천원을 대종회로 보내왔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50년 대종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도 기부금 동참!

사상 초유의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대종회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전국 지파종회 활성화와 30,40,50대 중심의 청수회, 청송심씨여성회 등의 모임을 결성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대종회 창립 50년 사상 최초로 여성 일가가 장학금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청송심씨우리종회 심경진 사무총장, 심재섭 회장, 심영철 부회장

청송심씨우리종회 심재섭 회장(㈜우리 대표이사)이 2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데 이어, 심영철 부회장(수원대학교수), 심경진 사무총장(사랑의밤차 사무국장)도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 심재순 일가농가 탐방



8월 8일 촬영. 왼쪽부터 심국향(제주 천혜향·레드향), 심청(울산 가수), 심홍보(창원), 심진식(함안), 심가영·심가희(삼례문화예술촌 대표), 심상조(서울), 심재영(서울), 심재화(산청군의회 의장), 심재순(산청 꽃감·별꿀), 심재화 의장 부인, 가수 심청 부군.

청수회 임원, 창원사복시정공종회 사당 참배



7월 31일 촬영. 왼쪽부터 심관섭(전북위원장), 심학섭(청수회 중앙회장), 심재일(창원사복시정공종회 수석부회장), 심성식(광주·전남위원장), 심홍보(경남위원장, 창원사복시정공종회 총무)

청송심씨 우먼 파워,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탐방



7월 4일 촬영. 왼쪽부터 심재순(산청 꽃감·양봉), 심가희(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대표), 심보영(청송), 심명자(청송), 심명희(청송 사과), 심영희(청송 사과 양조장), 심미정(청송 사과·토마토), 청송심씨머리 심청(울산 가수), 심국향(제주 굴·한라봉), 심강미(울산), 심가영(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대표)

청수회, 경기대구전북 지역위원회 잇달아 발대식



7월 24일 경기위원회 발대식(위원장 심진섭) 왼쪽부터 심영철, 심경진, 심학섭(회장), 심진섭(경기위원장), 심규순, 심영구, 심윤정, 심관섭(전북위원장), 심재희, 심정훈, 심경택, 심재철, 심명숙, 심배근, 심현섭, 심철규, 심흥섭, 심명식, 심규선, 심기영, 심성섭, 심해숙, 심재윤



7월 30일 대구위원회 발대식(위원장 심봉섭) 왼쪽부터 심현섭2, 심은규, 심재만, 심현섭1, 심평택, 심봉섭(대구위원장), 심병익, 심학섭(회장), 심관섭(전북위원장), 심광열



8월 7일 전북위원회 발대식(위원장 심관섭) 앞열 왼쪽부터 심가영, 심가희, 심양섭, 심선택, 심상철, 심재중. 뒷열 왼쪽부터 심현섭(1), 심관섭, 심철웅, 심영석, 심재열, 심현섭(2), 심한철, 심문섭, 심형섭, 심향보

지파종회 소식... 오늘도 조상님을 기리며

피 흘려 싸운 조상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

“내가 눈이 멀었다고 마음도 먼 줄 아느냐” 질타한 여장부

심씨 집안 독립운동 이야기 ① 심영식 애국지사



지난 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보내며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 면면이 재평가되었다. 현재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 받은 독립운동가는 1만6000여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 여성독립운동가는 2020년 3월 1일 기준 488명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필자는 12년 동안 여성독립운동가를 연구하며 여성독립영웅에 주목해왔다. 그 가운데 심씨 집안 여성도 있다. 3·1운동 당시 여학생과

교사의 활약은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장애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을 그리 많지 않다. 시각장애인 심영식(1887~1983) 애국지사의 활약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내 눈이 멀었다고 마음도 먼 줄 아느냐?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호소로서 만세를 부른 것 뿐이다. 너는 같은 동족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심영식(이명: 심명철) 애국지사는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이 본적으로 1896년 7월 15일에 출생했다. 1896년 미국 선교사 로제타 홀이 ‘평양점자’를 개발하면서 국내 장애인도 배움의 길이 열렸는데, 심영식 선생은 당시 개성의 리드 선교사와 시각장애인 백사겸 선생과 함께 기독교 전도활동을 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하순, 3·1운동 준비 소식이 개성에 전해지면서 개성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은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방과 후에 기도실에서 여학생들이 웅기종기 모여 태극기

를 만든다는 소식이 종교예배당에 전해지자 전도부인 어윤희와 졸업생 권애라, 신관빈, 그리고 심영식도 적극 참여했다. 독립을 호소하는 인쇄물 수백 장을 등사판으로 밀어 준비했고 비밀리에 교인들 집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3일 오후 2시가 되자 어윤희 선생은 연설을 했고, 심영식 선생은 앞장서서 독립선언서를 뿌리면서 만세를 외쳤다. 1000여 명의 군중이 대화정 일본인촌으로 들어서며 일장기를 모조리 찢어 버렸다. 심영식 선생은 포박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만세를 외쳤다.

심영식 선생은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8호 감방이었다. 정부는 심영식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회 소장 문학박사, 철학박사

3대가 독립운동가 · 국가유공자, 애국은 바로 이런 것

- 19세 소류공(휘 沈誠之), 20세 경방공(휘 沈能瓚), 23세 화원공(휘 沈相基) -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에 관향 청송에서 3대(代) 독립유공자 가정이 화제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구한말 청송의병 창의장을 지낸 19세손 소류공(휘 沈誠之 · 1831~1904) 집안이다. 돈녕부도정 의병대장 소류공은 건국훈장 애족장 (제3226호, 1995.8.15.)을 추서받았다.

1896년 청송의병 창의장으로 청송군 안덕 감은리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공의 둘째 아들인 20세손 경방공(휘 沈能瓚 · 1859~1903)은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제1838호, 2001.8.15.)을 추서 받았다. 소류공을 따라 부자(父子)가 함께 의진(義陣)에 참가해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활동하며 일제에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소류공의 고손(高孫)인 화원공(휘 沈相基 · 1925~1951)은 무성화랑무공훈장(제132020호)을 1954년에 추서받았다.



화원공은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양평 옥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국가등록문

화제 제497호로 지정된 청송 소류정은 120여년 전인 구한말 병신창의 당시 청송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소류공이 학문을 연구했던 강도소(講道所)이다. 관리는 소류공의 유일한 현손(玄孫)인 심봉섭(沈鳳燮 · 62)씨가 맡고 있다.

(청송=심남규)

남일 의병장,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110년

올 10월 4일은 남일 심수택 의병장의 110주기입니다. 남일 의병장은 1910년 10월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셨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남일 심수택 의병장의 추모식을 전남 서부보훈지청, 함평군청, 군의회, 월야면 번영회 등의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르면서 의향 함평이 낳은 영웅이 되셨다.

남일 의병장의 본명은 수택, 자는 덕홍, 호는 남일로 청송심씨 22세손이고 둔제공(휘:계년)의 후예입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2010년 11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일 의병장은 여러편의 한시를 남겼습니다. 거병을 하시며 “왜놈들을 쓸어버리지 못한다면 맹세코 모래밭에 죽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읊은 시도 있는데, 말씀처럼 1910년 가을에 교수형으로 순국하셨고 그래서 슬픈 가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남기신 시에 “내 돌아갈 길 기약하기 어려우나 해해마다 꽃이나 잘 피기 바라노라”라며 한민족의 무궁함을 예견하신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함평 = 손자 심만섭)

종회탐방 : 울산내금위종회를 찾아서

코로나19 세입자보호 13개 입주업주에 총 1억 1500만원 세입금 감면

울산에 뿌리내린 입향조 부자(父子) ... 5형제 후손으로 번창



심규화
울산내금위공종회 회장

1. 울산내금위종회는?

정3품 예문관(藝文館·한림원)학사를 지내신 10세조 학사공(휘 光衡)과 큰아들 내금위공(휘 滉) 부자(父子)께서 울산 입향조이시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로 지금의 돌질산(현 울산 남구 여천동)으로 추정하는 '목숙도'란 곳으로 유배를 오셨다.

훈구파에 속한 학사공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시다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계시던 큰아들과 함께 귀양살이를 오게 되었다. 학사공께서는 후일 중종반정으로 복작됐지만 끝내 벼슬을 사양하고 돌질산 아래 송호마을(현 울산 남구 아음본동)에 정착하셨다. 학사공의 차남 훈도공(휘 洸)도 나중에 울산으로 옮겨 오셨다. 입향조 부자의 묘소는 현재 남구 신정동 시리봉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묘소 아래에는 재실 갈현재(葛峴齋)가 있다. 1998년 입향 500주년 때는 갈현재에서 성대한 행사를 열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갈현재

입향조의 증손으로서 울산향교 교수였던 천재공(泉齋公·휘 渙) 할아버지께서는 임진왜란 당시 지금의 울산 북구 기박산성에서 의병을 창시하시고 혁혁한 공도 세워 지금도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 임란공신을 추모하기 위해 울산시가 건립한 충의사, 울주군이 건립한 서생포의 창표사도 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공의 묘소는 송호마을 앞 아음동산에 있으며 묘소 아래에 재각 여천당(麗泉堂)이 있다.

천재공의 손자인 15세조 때 다섯 형제를 두어 내금위공 후손은 크게 번창한다. 다섯 형제는 위로부터 아암공(휘 源鳴), 청헌공(휘 有鳴), 목정공(휘 大鳴), 주연공(휘 亮鳴), 찰방공(휘 希鳴)이고, 현재 30세까지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파보인 병신보(丙申譜)를 간행할 때 등재된 내금위공 후손은 약 5800여 명이었다.



울산 내금위파보

내금위종회는 10세 입향조부터 14세 남과공까지의 종재와 종사를 관리하며 내금위공 후손 모두를 아우른다. 15세조부터는 소파별로 파종회를 운영하고 있다. 종회는 해방 전부터 1956년까지는 유사 형태로, 1957년부터는 문장제(門長制)로 운영하다가 1973년 제5대 종수 회장 때 종회로 바뀌어 지금의 제16대 규화 회장까지 내려왔다.



2. 후생복지 제도

- 장학금 :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전문대 포함) 6명씩 12명에게 지급. 성적우수자보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효행 모범자를 우선 선발한다.
- 격려금 : 박사학위 취득자, 각종 고시 합격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 취득자, 체육 특기자, 군 장성 진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당선자, 교장, 고위공직 진급자 등 가문을 빛낼 인재들에게 지급한다.
- 지원금 : 청(장)년회와 청송회 등 지역의 일가 단체에게 매년 소정의 지원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특별금(국가정책 동참 등) :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태를 맞아 3월부터 12월까지 13개 사업장 세입자의 전월세금을 1억1500만원 정도 인하해 줬다. 이사회는 종회 운영은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3. 주요 행사

3월 1일 정기총회, 매 3년마다 봄 또는 가을에 지역의 일가친척 모두를 위한 화수회, 선조 문화탐방, 대중회와 인수부유공종회 춘추향 참배 등을 하고 있다.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울산 충의사, 창표사, 기박산성 추모제에도 참석하고 있다. 울산향교, 구강서원 등 지역 유림단체와 명문 집안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사회는 보통 분기별로 열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20여 개가 넘는 소파회 집행부 회의를 연 2회 개최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협의함으로써 원만한 종회운영을 꾀하고 있다.

4. 종회의 비전

임대를 주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노후 건물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고, 입향조 재실과 선조 묘역을 재정비해 공원화하며, 15세조까지의 선조묘소를 이 공원으로 옮겨 오는것도 고려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종중원을 위한 장학금을 늘리고, 모범종중원을 위한 격려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로종중원을 위한 장수축하금, 새로 태어나는 후손을 위한 출생장려금 지급 등 복지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선조들의 공적이나 문종 역사 등을 재조명하는 문집발간 등 미래지향적인 종무도 준비중이다.

일가기업탐방...전남 보성 보성천연염색공예관

심향란 관장, '천연염색의 최고 권위자' 로 등극하다



심향란 관장. 전통의 보존과 계승, 양쪽을 모두 이루려 애쓰고 있는 장인이다.

심향란 관장(24세손)은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산업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았다. 2017년 9월부터 녹차의 수도 보성에서 녹차와 쪽¹⁾에서 추출한 천연염료로 전남 보성의 전통 특산품인 삼베를 염색한 명품천연염료를 생산·유통하는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 '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529-45 산자락에 위치한 천연염색공예관은 대지 3만1151㎡(약 9500평), 건축면적 1367㎡(약 420평)로 작업실, 디자인실, 전시실, 한옥동, 염색동, 야외 체험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성군은 2017년 천연염색공예관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숨'(대표 심향란)과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심향란 관장은 “‘숨’은 2020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역주민과 함께 천연염색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전통 쪽 염색 기술을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며 “천연염색공예관에서선 천연염색 작품전시, 체험, 교육, 연구 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천연 염색의 보급과 산업화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향란 관장은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와 쪽 등 천연염료를 사용해 각종 전통 소품을 생산·판매하고 녹차, 홍차, 목화, 쪽, 치자, 황토, 숯, 쪽 등을 이용해 의류, 침구, 의료용품 등 다양한 천연염색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다. 또 전통 한옥 체험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6차산업(1차×2차×3차)에 기여하고 있다. 010 - 4613 - 5633(심향란 관장)

공예관은 또 학생과 일반인이 직접 염색을 해 볼 수 있는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보성천연염색공예관내에 있는 한옥체험관 겸 숙박시설



앞줄 왼쪽부터 심준섭(여수), 심상우 판사공중회 회장, 심금섭 총무, 심향란 관장,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뒷줄 왼쪽부터 심상백 판사공중회 이사, 심한섭(농협), 심성식 청수회 광주 전남 위원장.

공예관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숙박도 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일반인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예관은 남도브랜드 문예르네상스 기획사업 '삼베도령과 목화아가씨' 패션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의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후원하는 청소년지도자대상 및 패션분야 대상 시상식에서 '대극'이란 작품으로 천연염색패션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보성천연염색공예관 탐방에 동행한 판사공중회 심상우 회장, 심금섭 총무, 심상백 이사 등 일행은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에 있는 5세조 판사공(휘 沈義龜)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고, 재실인 죽산재(竹山齋)에서 판사공중회 운영에 관해 답소를 나눴다. 4세조 청성백(휘 沈德符) 할아버지의 둘째 아드님인 판사공은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를 지내셨으며, 조정(朝廷)의 기강을 세워 분수를 바르게 지키도록 한 공적이 현저하다. 운곡 원천석의 문인으로서 만년에 지평현(砥平縣)²⁾으로 물러나 거문고를 타고 글을 읽으며 생을 마감하셨다.

(정리=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1) 쪽(tinctoria H. GROSS) :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한자명은 남(藍)이다. 전 세계에 분포하며 캘커타, 마드라스, 자바, 과테말라, 구자라트, 칸베이 등이 유명한 산지이다. 잎은 건조시키면 짙은 남색을 띠어 남색 염료로 사용하며 해열, 해독, 소종의 효능이 있어 약재로도 쓰고 있다.

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砥堤面) 지방의 통일신라시대 행정구역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수상, 합격, 선발, 데뷔... 곳곳서 들려오는 심문의 낭보

심우진 소위, 육군 학사사관 '대통령상'



심우진(24세) 소위가 8월 26일 육군학사사관 65기 임관식(학사사관 545명, 단기간부 20명)에서 교육 성적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조선대 군사학과 출신. 심 소위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심재원 일가, '대한민국 서도대전' 특선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심재원 일가분이 대한민국 서도대전(한문 붓글씨 해서 부문)에서 2년 연속 특선으로 입상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7명 합격



심우연(사진) 심건욱 심동준 심원석 심인혜 심재윤 심정훈



'12K 괴물투수' 심준석 화려한 등장

8월 31일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덕수고 1학년 신인 투수 심준석이 6이닝 동안 12개의 삼진을 뺏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심순경 양, 대구시 청소년대상 수상



심순경 양(17·고교 중퇴)이 8월 18일 제 32회 대구시 청소년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심 양은 지역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위상강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심재은, 대통령 장학생 선발

서울대에 재학중인 심재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0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 선발됐다. 심 양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기 졸업생이다. 심양은 4년간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등을 받는다.

외손 백조은, 美 코넬대 전액장학생



뉴저지 글렌락 고등학교의 12학년 백조은 학생이 코넬대 전액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백 양은 심재규 대종회 부회장의 외손이다. 백 양은 4년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지원받는다.



하반기 인사 발령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7월 22일)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8월 20일)



심재앙 가천대 길병원 제2진료부장 (정형외과, 8월 1일)



심명희 춘천시보건소장 (9월 1일)

9월 11일 육군대령 3명 탄생



심창호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8월 4일)



심희권 육군대령



심흥기 육군대령



심현용 육군대령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8월 11일)

〈강원도 영월군〉(7월 6일자) ▲안전건설과 심지혜 ▲영월읍 심우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7월 13일자)

▲조세심판원 심우돈 〈경상북도〉(7월 17일자)
▲경북도서관 심명옥
▲동해안정책과 심사용 〈전북 익산시〉(7월 24일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DGB대구은행〉(7월 29일자)
▲대구1본부 센터장 심옥희 〈세종특별자치시〉(7월 30일자)
◇ 5급 전보 ▲자원순환과 심동섭
◇ 7급 승진 ▲건설교통국 심선혜 〈충남 논산시〉(8월 1일자)
▲안전총괄과 심석보 〈NH투자증권〉(8월 3일자)
▲삼성동금융센터 PB1센터장 심혁 〈경기도 남양주시〉(8월 4일자)
◇ 5급 전보 ▲철도교통과장 심원철 〈광주광역시교육청〉(9월 1일자)
▲봉산중교장 심순영 〈울산교육청〉(9월 1일자)
▲다운고 교감 심상승
▲중등교육과 장학사 심옥환 〈경기도교육청〉(9월 1일자)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심은영 ▲수리고 교장 심연아 ▲수원 대선초 교장 심봉운 ▲여주 가남초 교장 심상해 ▲의정부 송양초 교장 심재두

〈강원도교육청〉(9월 1일자)
▲춘천시 우석초 교장 심미성 ▲원주시 치악초 교장 심영택
▲하슬라중 교장 심충섭 ▲삼척중교(미로중) 교장 심재필 〈충북도교육청〉(9월 1일자)
▲음성교육지원청 심미경 ▲청주교육지원청 심정섭 〈충남도교육청〉(9월 1일자)
▲고대초 교장 심재진 ▲공주생명과학고 교장 심규호 〈경남도교육청〉(9월 1일자)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김해교육지원청 심윤정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심옥주 〈기상청〉(9월 1일자)
▲위성기획과장 심재면 〈한림대 의료원〉(9월 1일자)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부장 심정은 〈경기도교육청〉(9월 1일자)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심은영
▲수리고 교장 심연아 ▲수원 대선초 교장 심봉운 ▲여주 가남초 교장 심상해 ▲의정부 송양초 교장 심재두
▲마취통증의학과장 심재광

2021년 심문 달력, 조상의 숨결 깃든 장소 모아 발행한다

대중회는 청송 심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세 뿌리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2021년 청송심문달력>을 제작한다. 달력에는 조상의 숨결이 서린 곳의 사진을 실으며, 6천부 정도를 만들 예정이다.

달력에 실을 사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지 ▶



1월: 현재공 심사정(沈師正) 할아버지 작품



2월: 4세조 정안공 할아버지가 만든 한양 궁궐



3월: 시조 문림랑공의 재실 만세루



4월: 2세조 합문지후공의 재실 두산정(杜山亭)



5월: 4세조 악은공 모시는 재실 경의재(景義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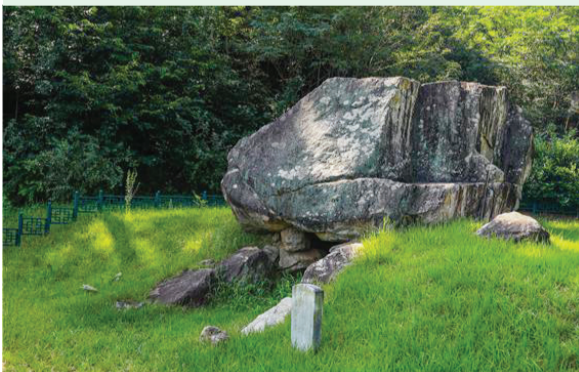
6월: 4,5,6세조 배향한 유교사당 양계사(良溪祠)



7월: 안효공을 기리는 수원 광교역사공원



8월: 공숙공의 효심이 서려 있는 시묘암(侍墓巖)



9월: 10세조 훈도공이 풍류 즐기던 함허정(涵虛亭)



10월: 일본에 꽃 피운 장인정신, 심수관도예전시관



11월: 늘 푸른 상록수 심훈 기념관



12월: 소헌왕후의 부리사랑이 깃든 찬경루(讚慶樓)



공지사항

☞ 대종회 찬조기부금 송금계좌는 <농협 301-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입니다.☞

대종회는 년 1만원 이상 찬조하시는 전국 일가분께 <2021년 沈門달력> 과 격월발행 종보 등을 배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비매품 제작 물을 송부해 드립니다.

신청은 전국 지파중회나 대종회홈페이지(www.csshim.or.kr) 또는 이메일(oksgj89@gmail.com) 또는 지정된 SN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청심장학회 장학금 협찬 송금계좌는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입니다.☞

장학생 선발공고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 그리고 연말에 발행되는 대종회종보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 청심장학회가 청송심문의 미래 자산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족보(族譜)수단 접수마감 ☞

인터넷족보 수단대금은 <농협 301-2267-7857-81 청송심씨대종회>로 계좌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족보에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추가경력 등 변경사항이 있는 일가분께서는 오는 10월30일까지 빠짐없이 수단(收單)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분을 찾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시던 심봉섭(父 심상은 母 이계순), 만섭, 용섭, 창섭 형제분을 찾습니다. 고향은 경남 의령군 칠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찾는이 : 심정환(載) 010-4709-9839

인터넷 족보(族譜) 등재와 수정 신청을 받습니다

대종회는 청송심문의 혈통과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을 수록한 대동세보(족보)를 5년 전에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추가경력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해 이번에 인터넷 족보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족보에 새롭게 등재를 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시는 일가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수단(收單)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 수단 접수기간 : 2020년 4월 1일 ~ 10월 30일
- 제출서류
 -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 서식)
 - 가족관계증명원, 재적등본, 기타 등재 관련 증빙서류
 - ※ 족보등재는 공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등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 제출방법
 - 우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찬경회관 5층)
 - 팩스 : 02-2269-7755
 - 메일 : set217@naver.com

- 수단작성 방법

<청송심씨종보>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메뉴 21」에 공지한 수단용지(갑,을)를 출력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 「정보자료실 메뉴 22」의 수단작성(견본) 참조
- 수단금 납부
 -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수정(修正) 10,000원
 - ※ 관은 기혼자(배우자 포함), 동은 미혼자의 신규 등록, 수정은 기 등재자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배우자 등 추가 등재를 말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2267-7857-81
 - 예금주 : 청송심씨대종회(족보)
- 유의사항
 -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사본 등 납부확인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입금 시에는 납부일자, 입금자, 금액 등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종회 총무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 연락처 : 02-2267-7857, 010-5591-0055

각종 찬조현황(2020. 7. 11 ~ 2020. 9. 17)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대평 (장학재단이사장) 심재봉 (인방산업 회장) 심규화 (울산내금융위중회 회장) 심훈 (대구중회 회장)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재섭 (우리중회 회장)

장학찬조 2백만원 2020년5월	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6월	종보찬조 150만원 2020년6월	장학찬조 50만원 2020년7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7월	장학찬조 110만원 2020년7월
-------------------------	-------------------------	--------------------------	-------------------------	--------------------------	--------------------------



심경진 (우리중회 사무총장) 심재열 (전북중회) 심상욱 (캐나다 토론토) 심정환 (시흥시) 심무섭 (안효공중회 회장) 심진섭 (장진푸드 대표)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8월	종보찬조 50만원 2020년8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0년9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0년9월	종보,달력찬조 600만원 2020년9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0년9월
--------------------------	-------------------------	--------------------------	--------------------------	-----------------------------	--------------------------

중보, 달력찬조

600만원	안효공중회(회장 무섭)
100만원	상욱(캐나다), 정환(시흥시)
50만원	재열(전주)
30만원	태섭(성남)
20만원	상돈(화성시)
10만원	윤섭(김포), 언촌(수원), 현종(광주), 재성(시흥시), 윤정(부산)
8만8천원	광택(캐나다), 상수(캐나다), 태섭(캐나다), 창섭(캐나다), 재환(캐나다), 용웅(캐나다), 우성(캐나다)
5만원	춘택(원주), 윤도(서울), 호명(서울), 명섭(순천), 상기(삼척시), 상은(서울), 형무(김포시), 흥보(창원), 상진(홍천)
3만원	재충(서울)
2만원	영섭(서울), 재희(일산)

이사회비

20년도 이사회비 5만원	극택(경기), 수영(전주), 상도(전북)
19년도 이사회비 5만원	상도(전북)

장학금기부

200만원	진섭(장진푸드 대표)
110만원	재섭(우리중회 회장)
100만원	영철(교수), 경진(수원)
100만원	현령공중회
18만원	정섭(증평)
7만원	재희(일산)
1만원	재희(일산)